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설명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1. 29.(금) / 총 1매(본문 1)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 자	·과장 김동준, 주무관 문병선 ·☎ (044) 201-3823, 3827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버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JTBC, '19. 11.28(목) >

◆ ‘휴대전화에 빠진’ 고속버스 기사...승객들 ‘공포의 160분’

- 버스운전기사 휴대전화로 유튜브 약 2시간 40분 시청...승객들 불안에 떨어
- 현행법상 범칙금 7만원, 벌점 15점...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\*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(추진내용)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, 영상물 시청 등 위반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, 운수업체 관리소홀시 사업정지 등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문병선 주무관(☎ 044-201-38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